

## 3월 10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3월 10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 제목                                        | 주요 내용                                                                                                                                                                                                                                            |
|-------------------------------------------|--------------------------------------------------------------------------------------------------------------------------------------------------------------------------------------------------------------------------------------------------|
| 뉴욕 증시 하락<br>[DOW: 6,547.05pt<br>(-1.21%)] | 세계은행은 올해 글로벌 경제가 종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은 "미국 경제가 벼랑에서 떨어졌다"고 진단했음. 미국 대형 제약사 머크와 세링플라우의 인수합병(M&A)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등 호재가 전해졌지만 투자심리를 살려내지는 못하고 낙폭을 확대시키며 하락마감 하였음.                             |
| 세계은행 경제 우려                                | 세계은행은 올해 글로벌 경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음. 세계은행은 다음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담에서 공개할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는 잠재성장률보다 5%포인트 낮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음. 세계은행은 아울러 글로벌 산업생산이 전년동기대비 15% 위축되고, 교역량은 80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음.                        |
| 줄기세포주 `급등`                                | 줄기세포 관련주는 급등했다. 제론(GERN)과 스템셀(STEM)이 각각 16.5%, 43.5% 뛰어올랐음.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허용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음. 오바마 대통령은 "장래성이 있는 줄기세포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자금지원 규제를 해제한다"며 "정부는 줄기세포 과학자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 글로벌 제약업계 M&A 본격 시작된다                      |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업계 전문가들은 제약주가 대부분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돼 있다며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특히 유럽 제약회사들의 인수합병 논의가 두드러질 전망. 미라버드의 닉 터너 애널리스트는 "유럽 최대 제약회사 사노피 아벤티스와 브리스톨 마이어 스쿼드 인수합병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브리스톨 마이어는 영국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인수합병 파트너도 될 전망"이라고 언급. |
| 왕치산 "중기업 해외 M&A 열풍 우려돼"                   |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왕치산 부총리는 전일(9일) "전 세계 자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해외 M&A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저가 매수`를 시작하기 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언급. 중국 정부 고위 관료가 기업들의 해외 M&A에 대해 경고한 것은 처음으로, 중국 기업들이 가치가 크게 하락한 서구 금융회사와 기업 자산을 무분별하게 사들일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를 반영.      |

| 제목                          | 주요 내용                                                                                                                                                                                                                                                                                              |
|-----------------------------|----------------------------------------------------------------------------------------------------------------------------------------------------------------------------------------------------------------------------------------------------------------------------------------------------|
| 日, 경상수지 급감으로<br>채권국가 역할 위협  |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일본의 채권 국가 및 수출 강국으로서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고 10일 니혼게이지신문이 보도. 일본은 지난 1월 13년만에 처음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고, 2008년 회계연도 전체로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년대비 반토막 가까이 날 것으로 전망.                                                                                                                                  |
| 선물사 작년 3분기 누<br>적순익 50% 급증  |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4개 선물회사들의 지난해 3분기(4월~12월) 누적 당기순이익은 960억원으로 전년동기 633억원보다 327억원(51.6%) 증가. 금감원 관계자는 "환율, 주식, 상품 등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선물거래가 활발해지자 수수료 수입이 늘었났기 때문"이라고 설명. 지난해 3분기 선물회사들의 수수료 수입은 1,725억원으로 2007년 동기 1,414억원보다 22.0% 늘었음. 같은 기간 선물사들의 위탁매매건수는 2,867만건에서 3,319만건으로 452만건(15.8%) 증가했음. |
| 주택건설목표 하향조<br>정..수도권 25만가구  |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수도권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주택건설(인허가 기준)물량을 작년(목표)보다 5만가구 적은 25만가구로 책정. 또 전국적으로도 45만가구를 목표로 설정, 작년 목표치보다 5만 1,000가구 적게 책정. 올해 정부가 세운 목표치는 작년의 목표치보다는 낮은 것이지만 작년의 실적치보다는 많은 것임. 작년에 수도권에서는 19만7,000가구, 전국 37만가구가 건설됐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목표는 수도권에서는 5만3,000가구, 전국적으로는 8만가구 많은 물량임.                |
| 한국 GDP 성장률 -<br>4.5%, 골드만삭스 |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대외 거시경제 환경의 훼손에 따라 이같이 조정했으며 "경기 저점 시기가 1분기에서 2분기로 지연되고,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점진적인 형태로 회복이 나타나 'V'자 형이 아닌 'U'자형 경제회복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골드만삭스는 환율에 대해서는 "원화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높겠지만 점차 강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연말 원. 달러 환율 예상치로 1,300원을 유지했음.                                                            |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